

# K리그1 ‘승격의 문’ 최대 3팀으로 넓어졌다

### 승강팀 수 ‘1+1’에서 ‘1+2’로 늘어 2팀이 플레이오프 치러 23구단 체제로 운영 ... K리그2도 교체카드 5명까지 확대 준프로 계약 연령 16세로 낮춰 고교 1학년도 프로무대 활동

새로운 시즌 K리그도 변한다. 11월 카타르 월드컵 일정으로 올 시즌 K리그는 이른 개막을 앞두고 있다. 2022시즌을 준비하는 팀들의 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개막을 기다리는 K리그에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승강팀 수 확대, 최대 3개 팀 자리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승강팀 수의 변화다. 지난 시즌까지 ‘1+1’였던 승강팀 수가 이번 시즌 ‘1+2’로 늘어난다.

일단 K리그1 최하위인 12위를 기록하면 자동강등된다. 그리고 K리그2 우승팀은 자동승격된다. 여기까지는 기존과 같다.

이번 시즌에는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르는 팀이 1팀에서 2팀으로 늘어난다.

K리그1 11위팀과 K리그2 2위팀이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 운명을 결정한다. K리그1 10위팀은 K리그2 3-5위 간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플레이오프 대결을 갖는다.

◇‘김포FC’ K리그2 참가, 23개 구단 체제

김포FC의 K리그2 참가가 총회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1월 중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K리그는 23개팀 체제가 된다. K리그1에서는 12개 팀이 대결을 하고, K리그2에서는 11개팀이 승격을 향한 전쟁을 벌인다.

K리그2가 기존 10개팀에서 11개팀으로 늘어나면서 경기수에도 변화가 있다. 팀당 36경기를 치렀지만 올 시즌에는 40경기 대장정이 펼쳐진다.

◇K리그2도 ‘5명 교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K리그1에 적용했던 ‘5명 교체’가 K리그2에도 적용된다.

선수 교체방식은 K리그1·2 동일하다. 출전선수 명단에 22세 이하(U22) 선수가 선발 1명·대기 1명 이상 포함되고, 대기 U22 선수가 교체선수로 투입되면 최대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U22 선수가 선발로 2명 이상 출전할 경우에도 5장의 교체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으면 최대 2명, U

22 선수가 선발로 1명만 출장하고 교체투입이 없으면 최대 3명의 교체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교체 횟수는 경기 중 3회까지 가능하고 하프타임 교체는 별도로.

◇‘준프로계약’ 활성화 ... 고1도 프로 무대에서 뛴다  
2018년 도입된 준프로계약 제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시즌 K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수원 삼성의 정상빈도 2020년 준프로계약 후 프로계약으로 전환한 사례다.

최근 추세에 따라 K리그는 준프로계약 체결 연령을 기존 17세(고2)에서 16세(고1)로 낮췄다. 한 구단이 준프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간 인원은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강원 이어 전북·대구·대전까지 ‘프로 B팀’ 4팀으로 증가  
‘프로 B팀’ 제도가 도입된 2021년 강원 외 처음으로 B팀을 구성해 K4리그에 참가했다.

올해는 전북, 대구, 대전까지 가세하면서 총 4개 구단의 B팀이 K4리그를 뛴다. 유망 선수들의 실전 경험을 통한 기량 향상과 선수단 운용폭 확대가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중단됐던 R리그(리저브 리그)는 2년만에 재개된다. 다만 각 구단의 상황에 따라 R리그 참가는 자율 선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유스 출신 김진영·정호연 영입



김진영(왼쪽)과 정호연

광주FC가 유스 출신의 ‘동남대기 듀오’ 김진영(FW·21·선문대)과 정호연(MF·21·단국대)을 영입했다.

광주 금호출신으로 2000년생 동남대기인 두 선수는 2016년과 2017년 백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2연패를 이끈 주역으로 2018년 제 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승도 합작했다.

김진영은 182cm·80kg의 다부진 체격을 가졌으며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드리블, 날카로운 결정력이 눈에 띄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선문대에 진학해 미드필더에서 공격수

로 포지션을 변경한 김진영은 첫 해인 2019 U리그 7권역에서 득점왕(7골)을 차지했다.

2020년 U리그 왕중왕전 우승에도 기여한 그는 2021년 제 57회 통영기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제 57회 태백산기 추계대학축구연맹전 등 많은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중앙 미드필더 정호연(180cm·73kg)은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며 볼 간수 능력이 뛰어나다. 또 투지 넘치는 플레이와 날카로운 패스로 득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자원이다.

뛰어난 리더십으로 고교 시절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고, 2018년 전국고교축구선수권 대회 우승 당시 최우수 선수상(MVP)도 거머쥐었다.

2019년 단국대의 제 55회 태백기 전국추계대학연맹전 준우승, 제 15회 KBS N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준우승에 역할을 한 그는 2021 U리그 5권역 우승 주역으로도 맹활약했다.

김진영과 정호연은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팀에 대한 애착이 크다. 꿈꿔왔던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돼 영광이다”며 “패기 넘치는 신인의 자세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효 광주FC 감독



남기일 제주유나이티드 감독

## 이정효 “내년 K리그1에서 만남시다” 남기일 “준비된 감독, 팀 잘 이끌 것”

### ‘6년 동행’ 끝난 광주 이정효·제주 남기일 감독

“제주가 좋은 미드필더 많이 영입했다. 경기 안 뛰는 선수들 나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이정효 광주FC 감독)

“오하러 나를 많이 도와줘야지..”(남기일 제주유나이티드 감독)

6년의 동행을 끝낸 이정효, 남기일 두 사람이 ‘광주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년 만에 K리그2로 내려온 광주FC는 올 시즌 이정효 감독을 앞세워 승격에 도전한다.

이정효 감독은 처음 지휘봉을 잡는 ‘신인 감독’이지만 광주팬들에게는 익숙한 얼굴이다. 그는 남기일 감독을 보좌해 2016·2017시즌 광주 수석코치로 활약했다.

이후 ‘남기일 사단’으로 성남FC와 제주에서 승격을 이루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그는 광주가 신인 감독을 찾을 때마다 우선 언급된 이름이기도 했다.

이정효 감독은 “좋은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수석코치로 일을 많이 하면서 배웠다. 감독을 맡게 되면 어떤 축구를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했었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광주에서 좋은 기회를 줬다”며 다시 맺어진 광주와의 인연에 대해 기뻐했다.

자신만의 축구를 그라운드에 펼쳐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다. ‘감독 선배’인 남기일 감독도 5년을 함께 한 이정효 수석코치의 소식에 가장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도 내비쳤다.

이정효 감독은 “(남기일 감독이) 걱정을 많이 해주신다. 코치로 있다가 감독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다”면서도 “인

젠가는 감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흥분되고 좋다. 걱정해주시는 만큼 더 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력 재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된 만큼 SOS 신호도 보냈다.

이정효 감독은 “제주가 미드필더를 많이 영입했다. 경기 안 뛰는 선수들 어떻게 하겠는지 궁금하기는 하다.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말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욕심이 많으시다. K리그 명장 아니신가요? 나는 이제 막 시작하는 감독인데”라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이정효 감독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기일 감독은 “분가를 했다. 많이 도와줘야지”라며 “전지훈련 가는 길에 (이정효 감독이) 전화를 해왔다. 훈련 열심히 하고, 팀 잘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말했다.

또 “감독으로 준비가 잘 되어있다. 감독으로서의 과정, 준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팀을 잘 이끌 것이다. 나와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고, 헤쳐나가면서 지혜도 얻었을 것이다. 그 지혜들로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준비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색 내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펼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올 시즌 K리그 그라운드에서는 두 감독의 맞대결을 볼 수 없다.

이정효 감독이 K리그2에서 목표한 ‘승격’을 이루고 제주가 K리그1 자리를 지켜, 내년 시즌 인연 많은 두 사람이 그라운드에서 ‘적장’으로 재회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렇게 좋을수가...” 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울버햄프턴의 주장 무티뉴(왼쪽 두 번째)가 득점한 뒤 동료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희찬 결장 속...울버햄프턴, 42년 만에 맨유 원정 승리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황희찬(26)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프턴 원더러스가 42년 만에 올드 트래퍼드에서 승리를 맞았다.

울버햄프턴은 4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2021-2022 EPL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주장 무티뉴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울버햄프턴이 맨유와 원정 경기에서 이긴 건 198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승점 3을 쌓은 울버햄프턴은 리그 8위(승점 28·8승 4무 7패)에 자리하며 7위 맨유(승점 31·9승 4무 6패)의 뒤를 쫓았다.

최근 공식전 8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하던 맨유

는 이날로 무패 행진을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랄프 랑니크 감독 체제에서는 첫 패배를 당했다.

울버햄프턴은 전반에만 슈팅을 15차례(유효 슈트 4개)를 시도했는데, 마무리까지는 되지 않았다.

전반 12분 다니엘 포덴세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트를 시도했고, 뒤이어 코너킥 상황에서 흐른 공을 후방 네베스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한 게 맨유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에게 연달아 막혔다.

상대의 맹공에 애를 먹던 맨유도 전반 26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왼발 중거리 슈트가 울버햄프턴 골키퍼 조제 사에게 안겼고, 43분 에딘손 카바니가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찬 오른발 슈트는 골대를 훌쩍 넘겨 득점에 실패했다.

0-0으로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양 팀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맨유는 후반 22분 네마냐 마티치의 패스를 받은 브루누 페르난데스의 슈트가 골포스트를 강타해 아쉬움을 삼켰다.

1분 뒤 프리킥 상황에서 호날두의 헤딩 골이 터지는 듯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무산됐다.

울버햄프턴도 후반 30분 로망 사이스의 프리킥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다.

공방 끝에 결국 득점에 성공한 쪽은 울버햄프턴이었다.

후반 37분 아다마 트라오레가 오른쪽 측면에서 울린 크로스를 맨유 필 존스가 걷어내자 무티뉴가 세컨드 볼을 잡아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맨유 페르난데스가 페널티 아크 앞에서 찬 프리킥을 사가 막아내면서 울버햄프턴의 승리를 확정했다.

/연합뉴스